

# 전주시, 도시계획 규제완화 '시작'

###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타법률과 다른위원회 등 통해 중복·반복 심의 없애

우범기 전주시장의 시정 운영 방향이 높아진 불필요한 규제 철폐가 시작됐다.

전주시는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담은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96회 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던 건축물 높이 40m 이상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

됐다.

다른 법률 및 각종 위원회에서 높이와 경관 등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 받는 것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또 표고 75m 이상 개발 시에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거지역에서 이미 개발이 이뤄진 대지(지목 '대')에 건축하면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의 통과로 도심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고려해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 제한기준도 완화됐다.

건축물 용도와 관계없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한 규모의 지하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병원의 용적률에 여유가 없더라도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면,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 증축이 가능해졌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이어 각종 도시계획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동시에 역사도심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규제사항 변경과 고도지

구 결정기준 및 고도지구 변경 결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우범기 시장은 "전주가 강한 경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고도지구 층수 제한 등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지역 발전을 막아온 벽을 허물어야 한다"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킬 것을 확실히 지키고, 바꿀 것을 확실히 과감히 변화하고 혁신하는 전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뉴스

## 전주시의회, 각종 현안 짚어

최주만·박혜숙·김성규·최지은·한승우  
이남숙·양영환 시의원 5분 자유 발언

전주시의회에서 전주한지의 보존·계승 계획 마련 등 지역 현안을 짚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최주만·박혜숙·김성규·최지은·한승우·이남숙·양영환 전주시의원은 17일 제396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열어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했다.

이날 최주만 의원은 천 년 이상을 보존할 수 있는 전주한지의 브랜드 제고 방안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양질의 한지를 발전시키고 계승할 사람을 지속적으로 발굴·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질 좋은 한지를 생산하기 위한 기초분야 연구 투자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한지 문화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한지산업지원센터도 방문객에게 특별한 한지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주말 개방하는 등 운영시간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혜숙 의원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간지산 둘레길 오송제 일대에 시민편의를 위해 공공화장실 신축의 시급함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간지산 오송제에는 화장실 대신 소리문화전당 화장실

을 이용하라는 팻말이 있을 뿐"이라며 "이용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매우 당혹스럽고 언짢은 일"이라며 공공화장실 신축의 필요성을 말했다.

김 의원은 "전주 내 공동주택 중 아연도강관의 사용단지는 22개 7696가구(22%)에 달한다"면서 "150가구 미만의 비 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정확한 상태 조사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된 22개 단지 중 2개 단지에서 녹물이 발견됐다"면서 "시도 타 지자체와 같이 공동주택 수도관 교체에 위한 지원사업을 총액한도가 아닌 가구당 비용으로 지원하고, 가구가 많을수록 공사비용이 감소하는 조례의 문제점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외 최지은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전주시'를 위해 돌봄의 질적 확대, 한승우 의원은 '모악산 힐링공간 조성'을 위한 자연휴양림 설치, 이남숙 의원은 '전주소각자원센터 신규 설치를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 마련', 양영환 의원은 '전주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철폐에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각각 언급했다.

/뉴스

## 전북 승강기 25% 노후... 사고 하루 2번 꼴 발생

### 15년 이상 노후 승강기 6174대로 전체의 25.6%... 이 중 25년 넘은 승강기도 891대

전북의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엘리베이터, 휠체어 리프트 등)의 25% 가량이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매년 800건 이상의 승강기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다.

17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북에 설치된 승강기는 2만 4055대다.

전주 1만 1049대, 군산 3838대, 익산 3744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설치한 지 15년이 경과된 노후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 대상자로 분류된다.

전북의 15년 이상 노후 승강기는 6174대로 전체의 25.6%에 달했고 이 중 25년이 넘은 승강기도 891대 있었다.

노후 승강기가 전체의 1/4정도를 차지하면서 승강기 관련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승강기 관련 안전사고가 2659건 발생해 1324명이 구조됐다. 하루 평균 2.4건의 승강기 사고가 발생하고, 1.2명이 구조된 것.

실제 지난 1월 7일 오후 7시에는 전

주시 효자동의 한 상가건물의 승강기가 5층에서 고장이 나 승객 2명이 추위에 떨며 구급대원의 구조를 기다려야만 했다.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6시 30분경에는 전주시 인후동에 설치된 한 휠체어 리프트가 멈춰 시민 2명이 구급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승강기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유는 높은 건물이 많아지면서 승강기 설치 대상이 늘었고, 노후 승강기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승강기 안전 확보를 위해 한국승강

기안전공단은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승강기는 설치 이후 2년 이하의 주기로 정기검사를 하고, 15년 이상 노후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1년이 넘은 경우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등 8개의 필수부품을 교체하거나 승강기 전체를 바꿔야 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는 "노후 승강기는 고장 위험이 크기 때문에 매월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15년이 넘은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 "ESG 경영 가치 확산" ... 전주시설공단-SK브로드밴드 전주방송 '맞손'

### "경영 활성화로 지역사회 발전 보탬 되길 기대"

전주시설공단과 SK브로드밴드 전주방송이 ESG경영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공단은 17일 공단 이사장실에서 구대식 이사장과 SK브로드밴드 전주방송 김희수 보도제작국장 등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ESG 경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ESG 경영 가치가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공단은 올해를 ESG 경영의 원년으로 삼고, ESG 경영 가치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단은 특히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본연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환경(E, Environment)과 사회(S, Social), 지배구조(G, Governance) 등 비재무적 3요소에 '안전(S, Safety)'을 더해 'ESG+ 안전' 경영 철학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SK브로드밴드 또한 기업과 이해관계자 모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전자적으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구대식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ESG 경영 가치를 더욱 확산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ESG+ 안전 경영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ESG 경영을 선도하는 대표 공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설공단은 17일 공단에서 구대식(사진 좌측) 이사장과 SK브로드밴드 전주방송 김희수(사진 우측) 보도제작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ESG 경영 활성화 홍보를 통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일리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 전주시, '한복 물결 가득' 한복문화주간 운영

### 23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일서 '한복한 주' 주제

전주시는 17일부터 23일까지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한복한 주'를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연다.

한복문화주간은 우리의 멋과 전통이 담긴 한복을 널리 알리고 일상 속에 한복 입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전국 단위의 행사다.

시는 지난 2018년 개막도시로 선정된 이래로 매년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 한복관련 단체와 문화예술인, 관광 콘텐츠 등과 협업을 통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 한복문화주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한복교육과 드라마 한복 체험, 한복 포토존 운영, 한복입고 전통놀이 체험, 한복콘서트, 한복패션쇼 등 한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열린다.

이번 한복문화주간에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궁중의상과 특수복 등이 준비돼 한복 악세사리를 만드는 체험과 함께 색다른 한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한국전통문화전당 내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놀이집과 연계해 한복을 입고 보물찾기, 사방치기 등 전통놀이도 즐길 수 있다.

행사장 곳곳에는 한복 포토존이 설치돼 한복의 물결로 가득 채워진다.

시 관계자는 "한복은 옷이기에 입어야 그 가치가 더욱 빛날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한복의 대중화를 위해 올해 조성하는 한복창작소를 거점으로 한복문화 활성화사업에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